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 전반적으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지난 6월 모의평가의 방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출제되었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과 제7차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목표 및 내용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와 대화의 글을 제시하여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및 적용 능력을 측정하도록출제되었다. 전년도 수능 및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EBS 교재와 70%의 문항이 연계되어,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의 경우 EBS 교재 문항에 나온 대화/지문을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하여 16문항이 출제되었고, 읽기와 쓰기 문항의 경우에도 지문을 활용하여 19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서처럼 두 군데 빈칸 추론 문항이 29번 문항으로 출제되었고, 필자의 주장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없어진 대신, 쓰기 문항의 한 유형인 글의 순서 파악 문항이 두 문항 출제되었다.

② 파트별 세부 경향

- 듣기 및 말하기: 2012학년도 수능 및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항은 없었으며, 소재 면에서 선풍기 구입(1번), 친구 과제 도와주기(4번), 자동차 주차하기(8번), 수의사와 애완동물 주인의 대화(9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대체로 평이한 난도의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어법 및 어휘: 어법 문제는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출제된 주요 어법 사항들로는 명사의 수/양에 따른 many/much 선택, 문장 내에서 부정사의 역할, 분사구문에서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활용, 전치사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 one,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등이다. 어휘 문제는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는 유형과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는 유형이 출제되었다.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는 31번 문항과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고르는 32번의 문항 둘다 EBS 교재와 연계되어 제시되었으므로, 평소 어휘 학습을 충실히 하고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 읽기 및 쓰기: 대부분의 문항은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유형과 똑같이 출제되었다. 6월 모의평가와 같이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항 유형이 없어지고, 그 대신 쓰기 문항의 한유형인 글의 순서 파악 문항이 두 문항(42, 43번) 출제되었고, 지문의 두 군데 빈칸에 적절한 표현을 추론하는 문제도 29번으로 출제되었다. 29번 문항의 경우 이번에도 EBS 교재와 연계되어 미리 지문을 학습한 학생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 연계되지 않은 어려운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할 수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난이도

① 총평

- 6월 모의평가에서 연계된 EBS 교재는 고교영어듣기(I), 수능특강,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1), (2) 총 4권 밖에 되지 않았고, 각각의 교재 분량도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계 교재들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었고 연계 체감도도 높았지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교재 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난도도 더 높아진 두 권의 교재인 고득점 330제와 수능완성이연계교재로 추가되어 각각 8문항과 6문항이 출제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연계 체감도는 6월 모의평가에비해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어휘나 복잡한 구문 등으로 지문의 난도가 높은 고득점 330제와 수능완성을 중, 하위권 학생들이 완전히 소화해 내기에는 6월모의평가 이후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권 학생들 보다는 중, 하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연계 체감도가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로 유지되었고,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여 특이할 만한 고난도 문항(3점 문항인 빈칸추론 28번 문항이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EBS 영어독해연습(1)과 연계되어 출제됨)도 없었으며, 수험생이 쉽게 풀 수 있는 부담 없는 문제들(18번 글의 목적, 19번 지칭추론, 35번 심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난도는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된다.

② 만점자 1%에 대한 코멘트

학습 부담이 큰 고득점 330제와 수능완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항이 출제되어 전반적인 연계체감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만점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연계 교재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답률이 20% 미만의 고난도 문항들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만점자 비율은 6월 모의평가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된 26번 및 28번 빈칸 추론 문항을 정확히 풀어냈느냐와 실수 유무가 학생들이 만점을 받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예상된다.

③ 파트별 세부 난이도

- 듣기 및 말하기: 2012학년도 수능 및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었으며 새롭게 시도된 유형은 없었다. 대화나 담화의 길이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였고, 17문항 중 16문항이 대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하여 EBS 교재와 연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대화나 담화 중에 단서가 명확히 제시되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어법 및 어휘: 어법 문항 20번과 21번은 단편적인 문법 지식을 묻기보다는 문장구조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EBS 교재와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영어 구문 지식을 익힌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어휘 문항 31번과 32번은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므로, 문맥 속에서 적절한 어휘를 파악하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하고, 기본 어휘에 대한 학습을 병행했다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읽기 및 쓰기: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EBS 연계 교재의 수가 늘어나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늘어났으나, 정답률이 20% 미만인 문항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된 빈칸 추론 문항들(26번, 28번)을 정확히 풀어낼 수 있었다면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① **연계표**

문항		EBS 교재 연계 내용		BS 교재 연계 내용
번호	연계유형			문항번호(내용요소)
1	자료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62	31~32강 1회 1번(그림)
2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94	41~42강 6회 9번(관계)
3	지문 활용	수능완성(실전편)	49	4회 3번(주제)
4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94	15~16강 4회 7번(부탁한 일)
5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93	41~42강 6회 5번(계산)
6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89	13~14강 3회 12번(세부내용)
7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202	43~44강 7회 14번(이어서 할 말)
9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38	27강 4번(목적)
10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20	23~24강 8회 15번(이어서 할 말)
11	자료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89	39~40강 5회 11번(도표)
12	지문 활용	수능완성(실전편)	34	3회 6번(목적)
13	자료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96	41~42강 6회 13번(상황 그림)
14	지문 활용	수능완성(실전편)	34	3회 7번(부탁)
15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18	23~24강 8회 8번(장소)
16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76	9~10강 7번(부탁한 일)
17	지문 활용	고교영어듣기 I	121	23~24강 8회 17번(상황에 적절한 말)
19	지문 활용	영어독해연습 1	60	8강 1번(어휘추론)
20	개념 및 원리 활용	고득점 330제	32	67번(글의 목적)
21	개념 및 원리 활용	수능완성(유형편)	49	4번(어휘 박스형)
22	지문 활용	고득점 330제	23	48번(어휘 박스형)
24	지문 활용	수능완성(유형편)	32	7강 2번(빈칸추론)
28	지문 활용	영어독해연습 1	57	7강 4번(요지)
29	지문 활용	영어독해연습 2	67	6번(어법)
30	지문 활용	수능완성(실전편)	54	4회 26번(빈칸추론)
31	개념 및 원리 활용	고득점 330제	6	7번(빈칸추론)
32	개념 및 원리 활용	고득점 330제	36	79번(빈칸추론)
33	지문 활용	고득점 330제	35	76번(빈칸추론)
34	지문 활용	영어독해연습 1	122	17강 Exercise 3(장문독해)
38	자료 활용	수능특강	129	16강 Exercise 2(도표정보파악)
39	지문 활용	고득점 330제	62	140번(빈칸추론)
40	지문 활용	고득점 330제	122	280번(어휘 밑줄형)
41	지문 활용	수능특강	71	8강 3번(연결어)
43	지문 활용	영어독해연습 1	43	5강 Exercise 8번(빈칸추론)
44	지문 활용	고득점 330제	97	222번(제목)
45	지문 활용	수능특강	237	36강 Exercise 16번(연결사)

② 연계 체감도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총 50문항 중 35문항(70%)이 연계되었는데, 듣기 17문항 중 16 문항, 독해 33문항 중 19문항이 연계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느끼는 연계 체감도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듣기 문항에서는 고교영어듣기(I)에서 13문항, 수능완성 실전편에서 3문항이 연계되었는데, 소재와 주제를 이용한 문항과, 그림이나 도표활용 문항에 해당하는 1번, 11번, 13번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시각적인 친숙함을 높여 연계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독해에서는 수능특강 3문항,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1)에서 4문항,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2)에서 1문항, 고득점 330제에서 8문항, 수능완성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고득점 330제에서 19문항 중 8문항이 연계되었다는 것이 연계 체감도를 낮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고득점 330제는 수능완성과 함께 가장 최근에 나온 교재일 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난도가 높은 문항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득점 330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9월 모의평가에서 높은 연계 체감도를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

③ 연계 유형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연계 유형별 문항 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연계 유형	지문 활용	자료 활용	개념 및 원리 활용	계
문항 수	27	4	4	35
비율(%)	54	8	8	70

④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 (1) 듣기: 고교영어듣기(I)에서 13문항, 수능완성 실전편에서 3문항이 지문과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서 고교영어듣기(I)의 162쪽 1번 문항의 그림, 같은 책의 189쪽 11번 문항의 도표, 그리고 196쪽 13번 문항의 그림이 자료로 활용되어 출제되었다. 또한 EBS 교재에 출제된 문항과 동일한 유형의 문항도 두 문항(3번(주제), 17번(상황에 적절한 말))이 출제되었고, 담화를 대화로 재구성한 문항(9번(목적→관계 추론))도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 (2) 어법: 고득점 330제 67번 글의 목적 문항, 수능완성 유형편 11강 4번 어휘(박스형) 문항지문이 어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글의 목적 문항을 어법 문항으로 출제했다는 점이특이한 점이다. 어법은 문장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어법 사항들이출제되었는데, many/much 구별, 부정사의 쓰임, 분사구문, 관계사, 부정대명사 one, 동명사, 접속사,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등을 물어보았다.
- (3) 어휘: 고득점 330제 7번 빈칸추론, 같은 책의 79번 빈칸추론의 문항 지문이 어휘추론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프랑스에서 와인 소비량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하는 31번 문항은비교적 쉬웠지만, 인간과 애완동물 간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관점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비대칭적인 관계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32번은 고난도 어휘들(partake, asymmetrically, termination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이해도 쉽지 않아서,학생들이 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독해 : 33문항 중 19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는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원문을 복원하거나(30번 등) 내용을 줄여서(34

번, 39번 등) 출제한 문항들도 있었다.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변형 출제의 특징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장문독해의 지문이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인터넷수능 영어독해연습(1) 17강 Exercise 3 장문독해 지문이 34번 글의 주제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둘째, 연계교재의 문항이 똑같은 유형의 문항으로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수능완성 유형편 7강 2번의 한 단어 빈칸추론 문항이 똑같이 한 단어 빈칸추론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4. 9월 모의평가 이후 학습전략

이번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EBS 교재와의 연계도가 70%이지만,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출간된 고득점 330제와 수능완성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되어, 연계 체감도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문제유형이 거의 확정되었으므로,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들을 꾸준히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지문들에 익숙해져서 연계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고 문제 풀이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듣기의 경우, 17문항 중 16문항 이상이 고교영어듣기(I)과 수능완성 실전편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완성 실전편 6회에 출제된 듣기 문항은 9월 모의평가에서 3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11월 수능에서는 고교영어듣기(I)보다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듣기문항은 대본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소재나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되므로, 듣기 문항을 많이들으면서 대화나 담화의 소재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고교영어듣기(I)과 수능완성 실전편의 듣기 문항 파일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실전 감각을 잃지 않게해야 한다. 듣기 문항의 난이도는 6월, 9월과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어법의 경우,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며, 그 동안 수능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법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능동태과 수동태, 관계사와 접속사, 준동사(분사, 동명사, 부정사), 병렬구조, 그리고 품사(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쓰임새등이 있다.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어법 문항과 EBS 교재와의 연계로, 작년 수능에는 내용 일치문항이 어법 문항으로 연계되었는데, 9월 모의평가에는 글의 목적 문항이 어법 문항으로 연계되었다. 따라서 EBS 교재의 어떤 문항도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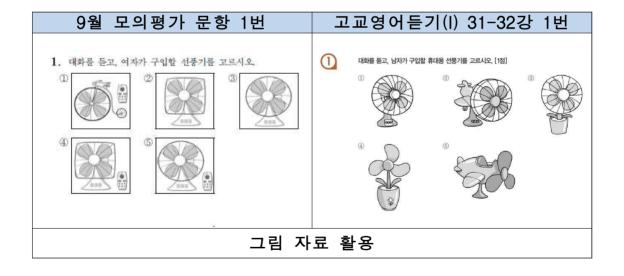
어휘의 경우, 어려운 어휘를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앞뒤 문맥의 흐름에서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출제되는 문항 두 유형이 모두 앞뒤 문장과 글의 흐름 속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휘가 문맥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어독해연습(2), 고득점 330제, 그리고 수능완성에 나오는 고난도 어휘들 역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어라면 익혀둘 필요가 있다.

독해의 경우, 많은 문항들이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되, 유형이 변형되어 출제되기때문에 글의 요지와 주제를 찾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 또한 글의 특성에 따라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서사로 전개되는 지문은 등장인물의 감정과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지문은 개념을 전개시키는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한다. 처음 보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글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어휘와 어법을 학습해야 한다. 그렇게 학습하다 보면,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수능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빈칸추론 문항을 푸는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1월 수능을 위해서는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된 고득점 330제와 수능완성을 철저하게 학습해야 한다.

6월과 9월에 나타난 EBS 교재의 연계 특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변형이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장문독해와 내용일치, 글의 목적 등의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 둘째, EBS 교재 문항과동일한 유형의 문항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다. 특히, 빈칸추론 문항이 6월, 9월에 모두 빈칸추론문항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문단 내 핵심적인 표현이나 논리적 흐름의 타당성도 고려하면서 학습해야 한다. 셋째, 41번부터 45번까지의 쓰기 문항이 5문항으로 늘어났다. 전체 글의 흐름과관계없는 문항과 글의 순서 정하기 문항이 각각 6월과 9월에 두 문항씩 출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EBS 교재의 빈칸추론 문항이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월모의평가에서 EBS 교재의 빈칸추론 문항이 전체 연계 19문항 중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다. 빈칸추론 문항은 문항 특성상 요지나 주제가 명확하고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지문으로활용하여 출제하기에 좋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면 좋다.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을 위해 빈칸 추론에서 고난도 3점 문항이 2문항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 6문항 중 절반은 EBS 교재에서,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빈칸 추론은 글의 요지나 주제를 포괄하는 핵심 부분이나, 앞뒤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빈칸이 주어지므로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과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선택지에 많이 제시되므로 선택지의 어휘 하나하나가 전체 글의 맥락에 맞는가를 살피고 또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5.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20번

고득점 330제 67번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report on a daily deadline for the first time? Or to interview a city official for the first time? Or to begin to maneuver a desktop publishing program? We know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was a source of (A) many/much of these firsts for you. We're still providing these important first experiences to budding young writers and editors. And we're hoping you'll be willing to help these students make it through the program. As you know, the costs of providing first-rate education just keep going up. We've done everything we can (B) contain / to contain costs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One of those things is to set up a scholarship fund for students with special financial needs. We hope you would consider contributing generously to our fund. You'll get a great feeling (C) known/knowing you'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future leaders in the profession.

(A)		(B)	(C)
① many		contain	 known
2 many		contain	 knowing
3 many	******	to contain	 knowing
4 much		contain	 knowing
(5) much	1	to contain	 known

067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dedicate yourself to meeting daily deadlines for the first time? Or to interview a city official for the first time? Or to begin to maneuver a desktop publishing program? We know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was a source of many of these firsts for you. We're still providing these important first experiences to budding young writers and editors. And we're hoping you'll be willing to help these students make it through the program. As you know, the costs of providing top-notch education just keep going up. We've done everything we can to contain costs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One of those things is to set up a scholarship fund for students with special financial needs. And we hope you would contribute generously to our fund. You'll get a great feeling knowing you'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future leaders in the profession.

- ① 대학 입학 관련 질문에 답변하려고
- ② 대학 언론학과의 교육 과정을 알리려고
- ③ 편집 전문가 과정의 학생을 유치하려고
- ④ 새로 나온 편집 프로그램을 광고하려고
- ⑤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려고

글의 목적 → 어법성 판단

9월 모의평가 문항 24번

수능완성 유형편 7강 2번

[24~2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24. When we behave irrationally, our behavior usually seems reasonable to us. When challenged, the mind says (to itself), "Why are these people giving me a hard time? I'm just doing what makes sense. Any reasonable person would see that!" In short, we naturally think that our thinking is fully justified. As far as we can tell, we are only doing what is right and proper and reasonable. Any fleeting thoughts suggesting that we might be at fault typically are _______ by more powerful self-justifying thoughts: "I don't mean any harm. I'm just! I'm fair! It's the others who are wrong!"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is nature of the human mind as its natural state. In other words, humans don't have to learn self-justifying, self-serving, self-deceptive thinking and behavior. These patterns are innate in every one of us.
 - ① spread
- 2 unveiled
- 3 fortified
- 4 overcome
- (5) authorized

0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we behave irrationally, our behavior usually seems reasonable to us. When challenged, the mind says (to itself), "Why are these people giving me a hard time? I'm just doing what makes sense. Any reasonable person would see that!" In short, we naturally think that our thinking is fully . As far as we can tell, we are only doing what is right and proper and reasonable. Any fleeting thoughts suggesting that we might be at fault typically are overcome by more powerful selfserving thoughts: "I don't mean any harm. I'm just! I'm fair! It's the others who are wrong!"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is nature of the human mind as its natural state. In other words, humans don't have to learn self-deceptive thinking and behavior. These patterns are innate in every one of us.

- 1 selfish
- 2 justified
- ③ unreliable
- 4 motivated
- (5) developed

빈칸추론

9월 모의평가 문항 29번

인터넷 영어독해연습(2) 67쪽 6번

[29~30]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9. One day as he walked through the streets of London, Thomas Hobbes, the seventeenth-century philosopher, came upon an old, sickly man who was begging for money. Hobbes, his heart touched, immediately gave the man a generous offering. When asked by a friend if he would have done the same had there been no religious dictum or philosophical principle about helping the needy, Hobbes replied that he would. His explanation: he felt some (A) himself when he saw the man's misery, and so just as giving money to the man would relieve some of the man's suffering, it "does also ease me." This tale suggests that we have a bit of self-interest in relieving the misery of others. One school of modern economic theory, following Hobbes, argues that people give to charities in part because of the ___(B) ___ they get from imagining either the relief of those they benefit or their own relief from alleviating their sympathetic distress.

* alleviate: 완화시키다

(A) (B)

① pain pleasure
2 contempt respect
3 doubt trust
4 humility dignity
5 hostility friendliness

■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난이도 ★★☆

One day walking through the streets of London, Thomas Hobbes, the seventeenth-century philosopher came upon an old, sickly man who was begging for money. Hobbes, his heart ① touched, immediately gave the man a generous offering. When asked by a friend if he would have done the same had there been no religious dictum or philosophical principle about helping the needy, Hobbes replied that he ③ did. His explanation: he felt some pain himself when he saw the man's misery, and so ③ just as giving money to the man would relieve some of the man's suffering, it "does also ease me." This tale suggests that we have a bit of self-interest in ④ relieving the misery of others. One school of modern economic theory, following Hobbes, argues that people give to charities in part because of the pleasure they get from imagining either the relief of those ⑤ they benefit or their own relief from alleviating their sympathetic distress.

어법 → (A), (B) 빈칸추론

9월 모의평가 문항 34번

인터넷 영어독해연습(1) 17강 Exercise 3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단하시오

HOIS BOO

34. Hundreds of species of small fishes exist in well-defined social organizations called schools. Fish schools vary in size from a few individuals to enormous populations extending over several square kilometers. Schools usually consist of a single species, with all members similar in size or age. For small animals with no other means of individual defense, schooling behavior provides a degree of protection. Predatory fishes have less chance of encountering prey if the prey are members of a school because the individuals of the prey species are concentrated in compact units rather than dispersed over a much larger area. Moreover, once a predator encounters a school, satiation of the predator enables most members of the school to escape unharmed. Large numbers of fishes in a school may achieve additional survival advantages by confusing predators with continually shifting and changing positions; they might even discourage hungry predators with the illusion of an impressively large and formidable opponent.

* satiation: 물릴 정도로 먹음, 포만

- 1 protective instincts of small fish species
- 2 origin of social organizations in small fishes
- 3 fish schooling as a behavioral strategy for survival
- 4 necessity of fish farms to save endangered species
- (5)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predatory fishes and prey

Hundreds of species of smaller fishes and several species of squids, sharks, and dolphins exist in well-defined social organizations called schools. Fish schools vary in size from a few individuals to enormous populations extending over several square kilometers. Schools usually consist of a single species, with all members similar in size or age.

For small animals with no other means of individual defense, schooling behavior provides a degree of protection. Predatory fishes have less chance of encountering prey if the prey are members of a school because the prey species are concentrated in compact units rather than dispersed over a much larger area. Moreover, once a predator encounters a school, satiation of the predator enables more members of the school to escape unharmed. Large numbers of fish in a school may achieve additional advantages by confusing predators with continually shifting and changing positions; they might even discourage hungry predators with the illusion of an impressively large and formidable opponent.

Schooling also can serve as a drag-reducing behavior as individuals draft behind leading individuals, much as race car drivers do. Laboratory studies with fishes that instinctively school also indicate that if these fishes are isolated at an early age and prevented from schooling, they learn more slowly, and begin feeding later, grow more slowly, and are more prone to predation than their siblings who are allowed to school. Schooling behavior also serves as a mechanism to keep reproductively active members of a population together. Many schooling species reproduce by broadcast spawning, and dense concentrations of mature individuals spawning simultaneously ensure

* satiation 발립 정도로 먹음, 포만 ** spawn 일을 낳다

- 5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chooling Helps with Migration
 - @ Farming Fishes: A Big Business
 - ③ Band Together for Better Survival
 - **4** Endangered Species: Marine Predators
 - (5) Schooling Raises Competition Among Fish
-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high proportion of egg fertilization
 - 2 the equal ratio of male and female offspring
 - 3 a great effect on the world's fishing industry
 - a quicker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 (5) the reduction of water's friction on their bodies

장문독해 → 글의 주제